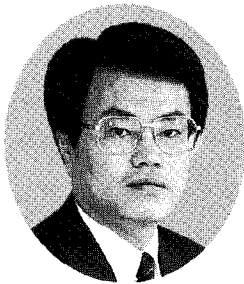


# UR 뒤의 태풍 ... MR

## 파장이 심상치 않다

MR태풍 불기파...

쌀개방 ·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로 흥역 예상-전망 불투명



오 덕 화  
농민신문 농정부장

**제** 2의 UR로 불리우는 밀레니엄라운드(Millennium Round, MR)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로 태동되는 MR은 UR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IMF의 한파까지 겹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또 한차례 거센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UR협상당시 차기 협상은 99년말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케언즈 그룹(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

임)과 미국 등의 조기협상요구에 따라 지난 5월에 열린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오는 9월 협상준비작업을 논의하기로 합의, 이제 MR은 피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쌀시장의 전면개방과 주요 농산물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관세의 과격적 인하 등 농산물분야의 추가적인 개방확대를 비롯해 서비스분야,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쟁정책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MR의 파장은 UR 못지않은 메가톤급 파괴력으로 전방위적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R의 배경과 주요 협상국들의 움직임,

우리와 관련된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사항을 심층 분석해 본다.

## MR의 태동

UR에 이은 대규모 다자간 통상협상인 MR은 당초 새로운 협상이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는 뉴라운드,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UR로 불렸다. 그러나 레온 브리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UR협상에서 차기협상을 99년말에 시작토록한 것과 관련해 회의 개시년도에 맞춰 천년(千年, millenium)의 개념으로 새협상을 MR로 부른것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MR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처음 주장한 나라는 호주로 96년 싱가포르 WTO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97년 열린 WTO 1차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했다. 이어 98년 5월에 열린 WTO 2차 각료회의에서 오는 9월 WTO 일반이사회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준비작업을 논의한다는 것과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여 끝낸다는 원칙적 합의를 함으로써 MR의 출범이 구체화 되고 있다.

## MR에 대한 각국의 입장

UR에 따른 각국의 이익이 다른만큼 새로운 협상인 MR에 대한 기본입장도 상당한 차이가 있

다. 미국과 호주등 케언즈그룹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 수출 확대와 국제 곡물값 상승등으로 UR의 반사이익을 마음껏 누리며 MR에 적극적인 반면 EU와 농산물 수입국들은 소극적이다.

MR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쟁점은 협상의 범위와 개시 시기와 관계된 문제다. 즉 농업과 서비스등으로 한정된 제한적인 협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UR과 같이 통상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으로 가져 갈 것인가 하는 것과 협상시기를 99년 말 이전으로 하는 조기협상 개시 여부다.

미국은 UR의 연장선에서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MR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MR은 UR에서 합의된대로 농업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협상 성격이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시각이다.

그러나 호주등 케언즈그룹의 포괄적협상과 조기 협상개시 요구를 이번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대폭 수용함으로써 케언즈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U는 UR협상 결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고 농민단체들이 EU의 2000년대 농업개혁방안인 아젠다(Agenda) 2000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MR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

이다.

EU회원국의 농민단체, 특히 프랑스의 농민단체들은 Agenda 2000이 농가보조의 감소를 통해 농가 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을 저해하고 MR에서 EU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R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들은 케언즈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가 자국의 국내정치문제중 가장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UR이후에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를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노선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WTO에서는 조기협상 개시와 농업보조 및 관세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APEC에서는 농산물을 품목별 조기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식량수수입 개도국들은 MR이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미국등의 식량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 제네바의 농민시위

지난 5월 18~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제2차 각료

회의에서는 MR을 포괄적인 협상으로 하며 조기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를 오는 9월에 개시할 것을 각료선언문을 통해 결정했다. 이와함께 19일에는 가트 창설 50주년 기념 정상회담이 개최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클린턴 미대통령, 쉐타 EU 집행위원장, 블레어 영국총리, 카스트로 쿠바대통령 등 참석한 14개국 정상 또는 정상급인사들은 WTO가 세계화란 슬로건 아래 도처의 무역장벽을 무너뜨리고 무차별한 교역확대를 성공적으로 추구해온 것을 치하하고 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확대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회의장에서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이 모여 무역확대에 대한 찬양과 차기협상인 MR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제네바 시내에서는 WTO를 비판하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유럽농민, 노동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시위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민그룹이라는 국제민간단체에 의해 평화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위규모가 5천명으로 늘어나면서 폭력시위로 변했다. 차량을 파괴하고 은행에 돌을 던지고 맥도날드 햄버거등 다국적기업 가게를 약탈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시위로 맥도날드 가게 4곳이 완전 파괴되고 차량 50여대가 부

서져 손실액이 50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도 150명이나 됐다. 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농민과 실업자들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WTO의 세계화가 모든 국가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미국 등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도 특수계층에서만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농민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은 실업과 근로조건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분노했다.

더 나아가 WTO의 세계화가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으며 제3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도움을 주지못한다는 비판이 각료회의 기간중 개최된 여러 민간단체 모임에서 강력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유럽농민들의 시위와 민간단체의 반발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나 보조금 감축, 관세인하등을 추구하게 될 MR이 시작되더라도 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임이 분명하다.

### 농업분야의 MR 쟁점들

농업분야만을 볼 때 MR은 UR 농산물협상의 후속협상의 성격이 짙다. UR에서 농산물 수출국

과 수입국의 이해가 대립됐던 사안들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한바탕 격돌을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중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은 쌀시장 개방확대를 비롯한 7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쌀시장의 개방확대

UR협상에서 우리는 쌀은 2004년까지 관세화(시장개방)를 유예하고 MMA(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국내 쌀소비량의 1~4%만 수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MR에서는 쌀시장의 완전 개방 요구가 강력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UR협상 당시 한국과 일본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시장개방)원칙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 쌀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따라 한국은 2004년까지, 일본은 2000년까지 쌀시장의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MMA 방식으로 쌀을 부분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이같은 예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쌀개방을 둘러싸고 또한차례 흥역을 치를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MR에서는 쌀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화 유예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 또한 관세화 유

에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무력화 시킬 정도로 MMA 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힘겨운 협상을 해야 할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MR이 시작되더라도 우리는 쌀시장 개방 불가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하겠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세화를 수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여는 것과 지금과 같이 MMA 방식으로 수입하는 양을 늘려주는 방법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 고율관세 대폭 감축

UR협상의 특징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한 수입제한이나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대신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즉 제도적으로 수입을 자유화 하되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또다른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농산물 수출국들의 불만이다.

MR에서는 수출국들이 중심이 되어 고율의 관세를 대폭 삭감(예를들어 50% 일괄 삭감 등)하는 문제를 강력히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관세상한선을 설정하여 모든 품목의 관세를 상한선 이하로 하자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APEC에서 논의된 2020년까지 관세 철폐를 목표로 무세화 품목 확대 시도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EU, 인도 등은 이 문제에 관한한 이미 UR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다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긴급 수입관세 제도의 유지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긴급관세제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고 EU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제도의 계속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 허용대상 국내보조의 분류기준 확립

수출국들은 허용 국내보조의 세부적인 분류를 설정, 엄격히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수입국들은 이 문제가 각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을 기하자고 맞서고 있다.

#### 생산제한과 관련된 직접지불제

UR에서는 생산제한을 전제로 직접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과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EU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일본등도 EU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 국영무역의 존폐

우리나라가 쌀을 조달청을 통해 도입하거나 마늘, 양파 등을 유통공사로 하여금 수입,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UR의 국영무역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이같은 국영무역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원칙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케언즈그룹 국가들이 국영무역이 WTO에서 금지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UR협상에서 우리는 개도국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보조금의 감축 등에서 선진국보다 좋은 조건을 인정 받았다. 예를 들어 수입개방후 관세감축에 있어서 선진국은 99년까지 36%를 줄여야 하지만 우리는 2002년까지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24%만 줄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 96년 OECD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MR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나 결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농약정보**